

2024. 2. 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02-2152-5802
백제학연구소	이혁희	02-2152-5960
관련 누리집 (메뉴)	baekjemuseum.seoul.go.kr 열린마당 → 공지사항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동물 뼈, 무엇을 알고 있을까?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 출토 동물 뼈' 분석 나서

- 지난 10년간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동물 뼈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실시
- 발굴조사 후 인문학적 자료 조사와 과학적 분석 연구를 통한 융합연구 시행
- 동물 뼈와 인골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고대인의 식생활 등 생활상 복원
- 동물 뼈를 비롯한 화장 인골에 대한 분석, '고대인(人)'에 대한 연구 전시를 이어갈 예정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지난 10년간의 몽촌토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동물 뼈에 대한 자연과학분석을 실시한다.

- 한성백제박물관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몽촌토성(백제 왕성)과 ▲석촌동 고분군(백제 왕릉지구)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이어 오고 있다.

백제 왕성이었던 '몽촌토성'에서는 1980년대 발굴조사 당시 몽촌토성 내 저장구덩이, 남문 터 안쪽 연못 등에서 400여 점의 동물 뼈가 출토된 바가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한성백제박물관이 조사 중인 북문 터 안쪽에서도

1,500~1,600년 전의 거대한 ‘물탱크’인 집수지와 포장도로의 배수로, 저장구덩이 등에서 400여 점의 다양한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

□ 먼저 출토된 동물 뼈에 대한 1차 동정\* 분석을 거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첨단 기기를 활용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더한다. 또한 더욱 심층적인 파악을 위해 인문학적 자료 조사와 학술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뼈 분석에 나선다.

○ 동물 뼈를 비롯한 유기물은 공기에 노출되면 잘 썩지만, 공기가 차단된 장소에서는 온전한 상태로 남는다. 동물 뼈 이외에도 씨앗, 나무, 꽃가루 등 다양한 유기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 동정(同定) : 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동물 뼈는 지금 살아 있는 동물 뼈(‘현생 표본’)와 비교하여 동물의 종, 성별, 연령 등을 파악한다.

□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동물 뼈에 대한 1차 동정 분석 결과 소, 말, 돼지, 멧돼지, 사슴, 개, 꿩뿐만 아니라 심지어 곰과 개구리도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가축으로 사육했던 소, 말, 돼지의 뼈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생선 뼈와 조개껍데기도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발견되는 해양 생물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 동물 뼈 중에서 가축의 뼈가 가장 많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가축 사육에 적극적이었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또한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얻은 동물 자원을 식용으로 쓰거나, 가죽, 뼈, 뿔, 발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구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 1차 동정 분석을 거친 동물 뼈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조사된다. 안정동위원소분석, DNA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뼈의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
  - 안정동위원소분석은 해당 동물이 섭취한 식량자원을 밝혀내 가축화된 동물인지, 야생동물인지를 알려준다. DNA분석은 성별과 친연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여 이 동물의 출생지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뼈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어 육안 관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 또한 몽촌토성의 동물 뼈를 통해 고대인의 의례 행위를 추정할 수 있다. 일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특수한 행위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자료 조사와 학술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한편, 한성백제박물관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동물 뼈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백제 왕릉지구인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화장 인골’에 대해서도 학제간 융합연구를 실시 중이다. 백제의 장례 문화 연구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향후 다양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대인(人)’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성을 강화하는 발굴조사를 이어 나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1부. 끝.



1. 집수지 출토 말 머리뼈



2. 성내 순환도로 출토 말 위턱뼈



3. 집수지 출토 말 발굽과 발등뼈



4. 집수지 출토 소 어깨뼈



5. 1-7호 저장구덩이 출토 소 발등뼈



6. 1-18호 저장구덩이 출토 돼지 아래턱뼈



7. 집수지 출토 멧돼지 넓적다리뼈



8. 집수지 출토 개 위팔뼈



9. 집수지 출토 개 발등뼈



10. 1-18호 저장구덩이 출토 사슴뿔로 만든 칼손잡이



11. 집수지 출토 곰 이빨



12. 집수지 출토 개구리뼈



13. 집수지 출토 새 발목뼈



14. 집수지 출토 고동



15. 집수지 출토 조개껍데기